

# 천진불 웃음소리로 즐거워진 사찰

전북·전남·강원 지역 사찰, 어린이날 행사 '다채'

미술 잔치·인형극 등 프로그램 마련 "사찰, 어린이들 교육 공간으로 활용" 아이·부모가 함께하는 수계법회도 열정사 '선재길 걷기' 2천여 명 몰려



선운사가 5월 4일 개최한 '제1회 선운 아동미술 큰 잔치'에는 380여 명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1일 동원사가 개최한 '영·유아 어린이 수계산림' 법회에서 어린이가 계를 받고 있다.

어린이날, 고즈넉한 산사가 모처럼 천진불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해졌다.

선운사(주지 경우)가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명준)는 5월 4일 '제1회 선운 아동미술 큰 잔치'를 개최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선운사가 처음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고창어린이집 등 11개 기관 380명 유치부 어린이들이 참가해 '사랑을 그려요, 행복을 색칠해요' 주제로 그림 실력을 뽐냈다.

이밖에도 도량 곳곳에서는 합장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만세루에선 인형극 공연이 열려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님과 감복을 나눠먹고, 도량을 운동장 삼아 뛰노는 아이들 덕분에 산사에 활기가 넘쳤다.

이날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은 아이켄 어린이집 이다은(5) 어린이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20명 어린이들이 선운상·맑음상·맑음상을 수상했으며, 선운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크레파스 등 그림그리기 도구를 선물했다.

김명준 센터장은 "선생님들은 사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은 사찰이 근엄하고 엄숙하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선운사 연수국장 자운 스님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불교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절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육아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

동원사(주지 지장)는 지난 5월 1일 대웅전에서 '제3회 영·유아 어린이 수계산림'을 개최했다. 빛고을관동회 불족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산림에서는 광주지역 영·유아 및 어린이 50여 명과 부모님들이 함께 계를 받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법사 스님들과의 가족촬영, 마정수기, 수계첩 증정, 108염주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계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전계사사리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은 "부처님 계율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오늘 이 계율에 따른 생활습관을 잘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수 아사리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은)은 "수계는 공덕을 쌓고 복덕을 증장하는 것이다. 공덕과 복덕이 쌓이면 가정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지혜'라며 "부모가 모범이 돼야한다. 부모의 모범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사)동연 광주지부(지부장 도제)는 5월 1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제9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 아이들이 글짓기·그림그리기·장기자랑 등에 참여했으며, 상장과 상품은 △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장 삼전라도·광주시 교육감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등이 마련됐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은 성장기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열린 연꽃문화제가 아이들 마음에 작은 불성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광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스님, 김동철 국회의원, 장만재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월정사(주지 정범)는 5월 5일 '제13회 오대산 천년 숲 선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회패 '해랑'의 식전 풍물공연, 개막식에 이어 본격적인 선재길 걷기가 진행됐다.

2000여 명 참가자들은 오대산장부터 상원사까지 10km 구간을 걸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순창 지역서 봉축법요식 첫 봉행

4월 30일 '순창 문화의 집'서... 100여 명 참석

비교적 불교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순창 지역에서 최초로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순창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암)는 4월 30일 순창 문화의집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재모암 주지 동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황숙주 순창군수, 이용호 국회의원 당선자 등 100여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반야심경·관불의식·법어·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순창 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30일 순창 문화의집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정암 스님은 "순창에서 봉행되는 첫 봉축법요식"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은 "불자들 마음마다 지혜의 등·축복의 등·나눔의 등을 밝혀 온 세상에 부처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종혜 스님 9번째 개인전 열려

4월 29일~5월 16일 강천사서 그림 24점·소품 24점 전시



순창 강천사는 4월 29일~5월 16일 '종혜 스님의 9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가 4월 29일~5월 16일 '종혜 스님의 9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미술전에서는 종혜 스님이 강천산을 비롯해 치악산, 무등산, 설악산, 백양사 등 전국 산하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다니며 그린 100호 크기 그림 24점과 소품 24점이 전시된다.

주지 종고 스님은 29일 열린 개막식에서 "문화예술의 고장, 순창의 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천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숙주 군수는 "스님께서 미술 작가라는 사실이 놀랍다. 전시 작품 또한 매우 훌륭해 강천사를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좋아할 것"이라 말했다. 종혜 스님은 "미려하게나마 순창군

에서 추진하는 문화융성사업에 동참하는 한편, 강천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불자들과 등산객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찾아 줄 수 있도록 작품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혜 스님은 전남시대 미술학과를 졸업해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비엔날레 엑스포전, 아시아 인터네셔널전, 방콕 폴란드 미술전 등 다수의 미술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봉축점등, 광주 곳곳 밝히다

광주불교연합회 등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 점등이 광주지역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4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서 '불국사 석가탑(국보 21호)'을 점등하고, 봉축 "빛고을관동회"를 개최했다. 봉축탑은 한지 등을 사용해 석가탑 높이 18m 크기를 재현했으며, 5월 16일까지 광주를 밝힐 예정이다.

수석부회장 명신 스님은 "빛고을관동회는 광주전남 불자들이 다함께 만드는 전통문화축제다. 특히 이곳 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적인 장소이자, 아시아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해 소통

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와 지역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늘 희망과 격려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등식에는 연광 스님, 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을 비롯해 스님 50여 명과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장휘국 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남 구례사암연합회(회장 영관)도 4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4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서 '불국사 석가탑(국보 21호)'을 점등했다.

월 29일 구례경찰서로터리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400여 명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법요식, 축하공연, 점등식, 탑돌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가수 주권기의 축하 공연과 어린이회 율동, 국악공연 등도 펼쳐져 광주 시민들의 즐거움을 배가 했다.

영관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구례군민과 불자들에게 늘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아버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고창군사회복지시설, 5월 4일 어버이날 행사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5월 4일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아버이 은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란 표어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어르신 30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이미용봉사·발마사지·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창보건소에서도 의료봉사를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관장 대원 스님은 "가족을 위해 헌신적 사랑을 베풀어 오신 어버이들에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5월 4일 어르신 30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복지관 직원들은 자식된 입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敎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원로최고의원 : 도일,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보각, 돈오, 덕암, 지원

원로의장 : 범아

사정원장 : 귀천

승가대학장 : 도안

호계원장 : 용진

총무부장 : 지관

사회부장 : 지혜

사서실장 : 성도

총회의장 : 법장

승정원장 : 덕암

교육원장 : 무아

염불원장 : 상호

재무부장 : 수연

규정부장 : 혜중

문도총무 : 청아

총무원장 : 대웅

법제지원원장 : 혜암

포교원장 : 효천

문화원장 : 보관

교육부장 : 응수

바구니부장 : 보현

중앙연수원장 : 동담

중앙선원장 : 혜광

울원원장 : 두현

문도회장 : 혜천

호법부장 : 혜관

문화부장 : 연제

종도 모집중입니다.

현 종 도 425명

등록사찰수 412개 사찰

경기교구총무원장 : 금조

대구교구총무원장 : 법천

인천교구총무원장 : 진각

경북교구총무원장 : 흥신

경남교구총무원장 : 무척

부산교구총무원장 : 심공

충북교구총무원장 : 길상

울산교구총무원장 : 무정

충남교구총무원장 : 지원

충분산행자교육원장 : 성도